



박형식 선생.

본명: 박 변보르 가브리엘로위치는 1909년 정월 18일에 원동 변경 우추리 구역 노보-리덱스크 촌에서 박창극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박형식 선생의 부친 박창극씨는 1891년에 역시 원동 변경 우추리 구역 연후혜 촌에서 제정 러시아 국적을 받은 원호집 가정에서 태어났었다. 박형식 선생이 1916년 부터 소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으나 그 해에 아버지가 제정 러시아 군대복무에 증병되어 집에서 떠난 그를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교원노릇을 하고 있는 삼촌의 집이어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 박형식 선생의 부친 박창극씨는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다음 이리쿠스크에서 사범전문학교를 마갑하신 당시 한인들 중에서 코어를 아주 방블하게 소유한 유색한 일터이었다. 때문에 사권을 마갑한 박창극씨는 정주군에 동원되기 전까지 군 기관아래 비처로 제했다. 군대에 나가서도 사병들의 신임이 높아서 1917년 2월 혁명 이후 군인 혁명 위원회 위원으로 선거 되었다. 그 당시 전후 부대에 배속되며 제 1계선에서 독일군대를 반대하며 계속 전후활동을 하고 있던 박창극 선생은 동년 4월에 증상을 당하여 원동 변경 우추리시에 추송되었던바 그 개월 후에

완치되었으나 군사검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인복무에서
제명되어 사회에 나가게 되었다. 사회에 나가 박형석씨는
원릉변감 한인 협회 책임비서로, 원릉공화국 원민 혁명준정
치부 지로원으로, 혁명군사위원회 한인 위원회 비서로 일하시
다가 원릉에서의 공민전쟁이 끝나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확립된
다음에는 1934년 가까지, 즉 한인 민테리토에 대한 산하인
적 전반적 한압이 시작될 때까지 당 단위를 리 소비
에트 기관 등에서 책임적 일을 하시었다.

박형석 선생은 원릉에서의 원민 생활이 단련되자 하여
지가 집에 돌아와 삼촌의 집을 부쳐 자기 집이 있는 스코프
브 시에 와서 1925년에 초중을 필히게 되었다. 이 초중에서
공부할시 박선생은 소년단에 입회하였으며, 다음 초중
졸업반에이 공부할 때에 러시아 공산 혁명회에 입회하였다.
박선생은 1925년 가을에 블라디보스토크 사절에 입회하
여 1929년에 필하였다. 1929년 부터 1931년 까지 소련
고 교장으로 일하다가 1931년에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사대
흥신 학부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여 1935년에 적사 지리
학부를 필하였다. 박형석 선생은 사대 흥신학부에서
공부할시 즉 1931년 부터 1935년 가까지 쓰비바스코
시 초중에서 지리학 교원으로 계시다가 마지막 3
년 동안은 그 초중 교장으로 일하시었다. 이 당시 에
즉 1932년에 박선생은 리 쓰피야 알렉산드롭네 씨
장가를 들어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다. 1936년 3월 부터
는 박선생은 쓰비바스코 시 교육부 학감으로 1937년 9까지
즉 한인들이 원동으로 불어 강제이주를 당하는 날까지
일하시었다. 강제이주로 인하여 박선생은 두근베 공화국 페르
가나 시에 도착하게 되었을바, 동년 시월 부터 1940년 7월

책 표제 내용: 소련 과학원 동양학 연구원

김 라트베이 저.

"원동변강에서의 소비에트 주권의 확립을 위한 한인-국제
주의자들의 투쟁"

출판사 《과학》 동양 문학 중앙출판사, 모스크바 1979년

박형식 선생이 쓴 유서의 내용:

귀공한 동생 블라디미르!

수년간 진지한 노력의 결과 라트베이 저의 책이
출판되었다. 이것으로써 역사가 모르고 있던 영예로운 한인 혁명자
- 국제주의자들의 업적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구히 기록하였다. 나는
이 책에 나의 아버지 박창규, 나의 삼촌 박창익, 아버지의 사촌동
생들인 박창섭, 박창인 이상 나의 친척들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하여 높은 긍지감을 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자기 아버지의 충실한 계승자이며, 또
진실한 레닌의 후계자, 공산당원 - 국제주의자임을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

이 책의 각 페이지들을 읽을 때이면 그 책 12장의 불길속에서 연약한
어머니를 따라 원수들의 위협을 무서워 몸이 단단하여 그 불행스럽
고 가혹아프던 최하의 빈궁과 험난한 복에서 살아간 우리의 노년
시기를 다시한번 회생케 한다. 이것은 잊을수 없다.

1979년 4월 20일, 너의 아버지: 코노도브시.

(아버지)는 박형식의 애칭.

이상 김라트베이 선생이 쓴 초책자에는 62명의 가장 저
명한 한인-국제주의자들인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계신
리동휘 선생, 리용, 남만춘 박진순 선생들이 기록되어 있
는 소련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책이다
이 책에 박형식 선생의 부친을 위하여 4행제가 기록되어 있

다른 것은 박선생의 권체 철학들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한합 당하고 강제 비추어 끌려 중앙아시아에 와서 살고 있는 한연 제오세대, 3세대들은 이상 전설적인 영웅들에 대하여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후 박선생은 -

1940년 7월부터 1943년 7월까지 페르가나도교육부 간부과장으로 계셨으며, 1943년 7월부터 - 1944년 11월까지 도교육부 부부장으로 일하신 다음 1944년 12월부터 1945년 10월 까지 페르가나 시 인민위원회 대외보통 부장으로 소련군에 초보원 때까지 일하시었다.

1945년 10월에 소련군에 공병이 되어 원종 변경 인민위원회 도청하이었다. 동년 11월에 소련 제 25군단 소속으로 북한에 들어와 북한 소련 인민 사령부 총영관으로 복무하였다. 1946년 6월부터 1951년 9월까지 북한 내각 직속 고급 지도 간부 학교 세제 경제 지리 교원으로 2년간 일하신 다음 교장직 무에서 3년간 계셨다. 1951년 9월부터 1952년 12월까지 북한 교육성 차관 직무를 지내시었다. 1953년 1월부터 1961년 4월까지 평양 사범대학 총장으로 일하시었다.

박선생은 북한에서의 사법하고 인민이 모범적인 교육 일군으로서 국제 평화 운동 후사들의 선열로서의 진실한 평화주의자로서 평화 사업을 꾸준히 실천하였다. 이것은 박선생이 평화 운동 후사로서 북방 인민의 대표로서 수천 국제 평화 운동 기구 회의에, 평화 운동 대회에 참가하신 다음부터 박선생의 평화 신앙은 더욱 강하게 되었다. 박선생은 1947년에 체코에서 진행된 제 1회 평화 운동자들의 대회에 참가 하였으며, 1950년에는 파란에서 열린 국제 평화 운동자들이 대회에 참가 하시었다. 특별히, 파란 평화 운동자들의 대회가 끝난 다음 전체 대회 참가자들에게 1941년 히틀러 강점자들의 피탈을 없애 평양하 5

였을시 무대한 유대인들을 학살한 오스비벤진 강제 수용소를 창안
 하시게 되었다. 유럽에서도 유대인들을 제일 많이 학살한 오스비벤진
 수용소는 박형식 선생의 귀환보고와 그후 계속 출현하신 강의 자료에
 의해서만 연소한 유대인들이 학살 당할시 남겨 놓은 죽은 집행이만
 하여도 5만개 여왕이제,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신발만 하여도
 50만 켤레 이상이었다고 하였다. 파쇼배들은 어떻게 잔인 무도하게
 평화로운 백성들을 학살하였다. 때론에 파쇼배들은 다시 어서같이
 초생해 나리 북하도록 인간 사회는 후생해야 되며, 전쟁이란 언제
 나 인간에게 무한한 고통과 경제 파산을 주기 때론에 인간은 어
 세상에서 전쟁을 근절하며, 그 전쟁이 발생할수 없는 근원을 철심
 하여야 된다고 무차 강조하시였다. 박형식이 이런 강의를 계속
 북한 내각 중앙 강북학교에서 하신 일로서, 바로 북한이 남한을 반대
 하여 시작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남한의 늑대어들의 퇴도
 어린 아이들아 퇴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 교육강
 령은 전쟁을 두종류로 분별하여 - 정의의 전쟁, 부정의 전쟁으로
 갈라 놓고, 북한이 남한을 반대하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으로 명명
 하고 다음과 같이 "공명" 하였다. 우선 남이 북침하였기에 북은
 자기 나라를 동호하고 인민을 용호기 위한 전쟁으로써 정의의 전쟁,
 둘째로, 남한에는 왜래 침략자 -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론에
 북한은 자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기때 정의의 전쟁이라고 결
 론하였다. 그 전쟁이 남침으로 시작된 실정과, 남한의 미군 주둔은
 우선 안보위협되어 결성애의면에서 한 미군에겐 현상이란것도 일
 방적 북한 현상들을 보르고 있던것만 사실이다.

이 리론에 근거하여 현재에도 그러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강력히
 로동당의 강령으로써 북한은 언제나 적당한 환경만 조성되면 정의의
 전쟁을 일으켜 기꺼운 남한을 미제국자들의 "강점에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강조하고 있다. 1960년경, 북한에서 소련과
 에 대한 사상검토 연극이 거어나 종결 되며 가고 있을시, 박형식 선생이 6

대한 사상검토 엄벌이 시각되었다. 사상 검토 회의를 사대 교직원과
로동당 열성자를 결원 참석하에 열린 근 일개월간 끝내서 박선생의 당
및 개체 생활에서의 결집에 대하여 호콜하라고 회의참가자들로 존
라 했으나 어느누구도 반대호콜하는 사람은 하나로 없었다.

허가이나, 박창욱, 박영민 등 반당 종파분자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
으며, 소련 관료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에 대하여 어떤 해독사업
들을 하였는가 하고 물음에, 박선생은 아무런 유해로운 반당적, 반연민
적 해독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을 뿐이었다.

박선생은 사실평화옹호자들의 대회들에 참가하여서와 또 특히
파란 모스크바인집 강제 수용소를 참관 한후 견결한 반전-평화
옹호자가 되었다. 전쟁이란 어떤 전쟁을 막고하고 백성으로 피
늘리게 하며, 경제에 파산을 주어 사회 발전에 지장을 주는것은
무조건적 철폐이한것을 똑똑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상검토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맑스-레닌주의 철칙에 힘입어
며 박선생에게 죄를 씌울수 있도록 문리를 꾸며내며 그에게서
범죄를 추궁하였다.

그들을 박선생에게 질문하기를: 왜 당신은 당의 노선과 정책은
외국하는 강의를 간부들과 대학생들 앞에서 계속하고 있는가?
라고 하였다. 그 말에 대하여 박선생은 대답하기를, 저는 당정책
을 외국하는 강의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대답에

이어서 당 사상검토 지도는 물기를: 당신은 자기 강의에서, 우리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전쟁이 발생할수없는
기분 원인을 청산하여야 된다고 자기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
가? 이것이 반당 노선이자 반당 정책이 아닌 무엇인가?

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로동당원으로써,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이 근원으로부터 꼭 남방을 리레공과들의 손에
서 해방하기 위하여 정의의 전쟁을 필연코 하여야 하리만
라고 하면서, 박선생을 가르치 - 반당 종파분자라고 비난하였

박형식 선생은 자기의 반권 사상이 논리 정연한 철학이라는 것을⁸
확연하게 알면서도 당시 상황은 지르자 알면서도 그것을 뱉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 회의는 연복 2개월간이나 계속되었으나
사대 교직원, 노동당원들은 아무런 정치적 문제도 내걸고 박선생
을 비판하지 않았으며, 부분적 당원들은 정반대로 박선생의 당성
연관성에 대하여 칭찬하였다. 또 부분적 당원들은 박선생에게 초
연 가족주의는 없다고 하면서 그를 시정하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
부라고 말하였다. - 특히 어떤 노련 출신 간부를 끼리 만나 놀기 즐겼던
중 "노련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으며, 노련서온 간부들은 왜
자기 자신들을 특별하고 최고급에서 공부시키는가? 이것이 노련 가족주의
다라고 비판하였다.

사상 검토 회의를 2개월 동안 늘리므로 아무런 정치적 감추는
씨를 없애고 문제가 나오지 않게 때문에 당시 상황 검토 지르자는
말이박 결론에서 박선생을 노련을 더 사랑하고 아이들도 노
련 교양을 극을 짓을 보아서 노련에 가서 사느라 좋겠다 하였다.
당시 상황 검토 지도자는 이런 결론을 내리느냐, 박선생의 특생각
은 전혀 반대 방향이었다. 박선생은 조국의 해방후 15년 동안이
나 건국을 위하여 몸을 바쳐 활하였으나 인제는 영원히 북한에서 살
다 죽을것을 각오하고 아버지의 용근한 유언을 풀기 위하여 인제는 어
려나도 노련에서 모셔오고, 동생도, 누이동생도 데려다 평양대
학들에 같이 교원으로 취직시켜 같이 살며살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고있는사람들이 생사를 결정하는 노동당 사상
검토 지르자가 인제는 조국에서는 살지 말고 도루 노련으로 가라는 언
가 내렸으나, 생각 하고 있던 바와는 정반대였으나 불행중 다행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상 검토 지르자 틀어 결론에
따라, 농촌이나 광산에 내거간 노련 출신 간부들은 수백 명이 가족
과 함께 종족이 없어진 사실들이 8-9 십프로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잘 알고 있는 박선생은 이주비 대한 문제로 뛰어다니고 9.
동생과 누이 동생까지 편지를 달리고 자기로 어서나를 보내고 소련으로
귀환할때 대한 물건 수속을 소련 대사관을 걸쳐서 시작하였었다.
그것은 소련 최고연변회의 상임위원회에 청원으로 제출하여 다시
소련 공민권을 달라는 것과 압국 허가증을 발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61년 7월에 박선생의 소련 귀환문제는 헬원에 오구한바와
같이 해결되어 1961년 8월 초순에 정돈 평양을 등지고 가족을
대리고 소련 모스크바로 귀환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박선생은 소련 연방공화국 교육성의 파견에 따라 로스도브시
에 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박선생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평양
기술 - 교육자로서 로스도브주 교육부 교육과장으로 임명되어

1970년 7월에 연금생으로 나가실 때까지 한자리에서
계속 일하시었다. 박선생은 로스도브에 도착하자 언차 사
택을 배정 받았으며, 아이들을 로스도브시에 있는 대학들에
압국 식히 공부하게 하였으며, 본인의 취직 불거도 해결 받았었다.

박선생의 모친은 박선생이 소련에 귀환할 당시 모스크바에
서 약 60 개로 떨어진 모스크바시에서 살고있는 딸집에 계시었다
그 모친은 하로속의 북한에서 살고있는 딸들을 박형식 선생의 집에 가서
계시다가 세상을 하직하시면 자기의 부모들의 고향 - 북한 땅에 불치
려고 연원 하였습니다. 북한 로동당 정책이 길을가름 하여 1965년
에 세상을 마감하고 소련 땅에서 죽고되었다. 박형식 선생은 자기의
모친의 장례식을 치렀다음 자기의 말기 장에 다음과 같은 불구를 남기
었다: << 우리 삼남매는 권가족들을 데리고 4일 동안 모스크바시
니나네 집에 불며들어 뽕시 불국히 지내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
뽕시 허락하누 언자하신 우리 어머니,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우리들을 항상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고 감싸주던 어머니의
심장이 영영 멀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생애는 전부다 우리를
위하여서였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서였다. 우리들은 어머니

가 너무도 불쌍하여 많이 울었다.

그러나 장례식이 지난 그 이튿날, 전복다 사방으로 헤쳐져 갔다.

1968년 8월 20일 백두돌부크.

이것이 70여년간 그 험악한 길을 걸어오시며 남편을 쓰러
린국의 탄압에 몰입고 삼남매를 일깨워워 놓으셨던 끝-끝내 말이
막 자기 녀원으로 성취하시지 못하고 세상 떠나신 어머니에 대한
애절스럽음 말이막 말이였다.

박형식 선생은 정규생활에 나가신 다음에도 시대 각 대학군
에서 1주 2시간 정도의 강의를 계속하셨으며, 전 소련 한인
중앙 신문 « 레닌 기치 » 의 열성적 집회기자로써 글쟁이
시였다. 박선생은 말이막 시기에 기관지염과 심장 마비병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생하시다가 1974년 11월 6일에 70세를
넘기로 하시어 세상을 떠나셨다.

박선생은 북한에서 일하시는데 국가 훈장으로 국가 훈장 3급
2급을 수여 받고 공화국 최고연변회의 표창장을 수여 받았으며,

소련에 계신시에 - 우크레인 공화국 최고연변회의 표창장을 수여 받고,
"위대한 조국전쟁시기에 기여한 영웅적 공로에 대하여" 한
레탈을 소련정부로부터 수여 받았으며, 소련에 다시 귀국한후 -
«조선 해방 메달기», «일제에 대한 승리 메달기», «소련군 30주
년 메달기» 등을 수여 받았다.

다들 말이막 시기에 따라 저출한 레탈에 따라 서술하였습
니다.

관동인